

# 육아정책 Brief

통권 제88호 | 발행인 : 박상희 | 발행일 : 2021년 9월 14일 | 발행처 : 육아정책연구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 여성과 육아에 초점 맞춰야

### I. 논의의 배경

북한이탈주민의 문제는 북한이탈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의 문제이자 자녀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들이 지원정책의 주요한 수요자가 되어야 함.

- 우리 사회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70% 이상이 여성이며, 탈북 동기는 '식량 부족'이 가장 많음.
  - ▶ 2020년 12월 기준, 북한이탈주민 33,752명의 약 72%인 24,317명이 여성임.<sup>1)</sup>
  - ▶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학력은 고등중졸(고졸)이 69.31%로 가장 많고, 재북 직업은 대부분이 무직부양<sup>2)</sup>(46.01%) 또는 노동자(39.66%)였음.<sup>3)</sup> 탈북 동기는 “식량이 부족해서”, “자유를 찾아서”, “가족(자녀)에게 더 나은 환경을 주려고” 순임.<sup>4)</sup>
-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와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됨(표 3).
  - ▶ 북한이탈주민의 생계급여 수급률은 23.8%로, 일반국민 3.8%에 비해 6배 이상 높음. 남한 초기 정착 시 북한이탈주민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서 생계급여를 받게 되는데,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계급여에 계속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 북한이탈주민 문제는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의 특성을 분석하여 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함.
- 본고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남한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의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함.

### II. 북한이탈주민 여성과 한부모 가정

북한이탈주민 여성은 정착 과정에서 남한 배우자와 혼인해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많음.

- 북한이탈주민 여성은 남성에 비해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약간 더 많음(그림 1). 남한 거주 기간이 길수록 배우자가 있는 비율도 높아짐(그림 2). 이는 정착 과정에서 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성별에 따른 배우자의 출신 국가가 확연히 다름.

1) 통일부 홈페이지 주요사업 내 북한이탈주민정책 현황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2021.8.27.인출\)](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2021.8.27.인출))

2) 무직부양은 우리의 실업. 무직과는 차이가 있는 개념으로, 장마당 등 비공식적인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대부분 해당됨(통일부 블로그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ounikorea&logNo=221309989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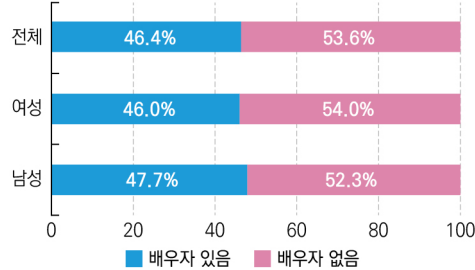
3) 통일부(2020). 2020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p.10, 11.

4) 남북하나재단(2021). 2020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p.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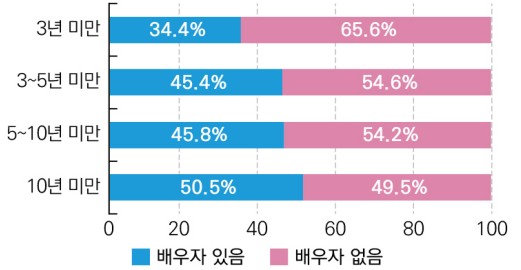


▶ 여성은 남한 출신 배우자가 50.0%로 가장 많은 반면, 남성은 북한 출신 배우자가 83.3%로 가장 많음(그림 3). 정착 과정에서 남한의 배우자와 혼인하는 경우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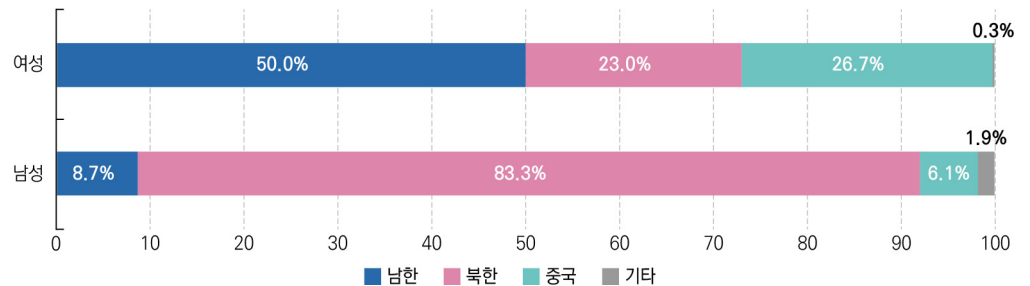
[그림 1] 성별에 따른 배우자 유무



[그림 2] 거주 기간별 배우자 유무



[그림 3] 성별에 따른 배우자 출신 국가



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배우자 있음으로 응답.  
 자료: 남북하나재단(2021). 2020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p.155. 표를 도식화함.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평균 가구원 수(2.3명)가 일반 한부모 가정의 평균 가구원 수(2.9명)보다 적다는 점에서 한부모 가정이 많을 것으로 추정.

또한 북한이탈주민 여성은 배우자보다 자녀와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모자 가정이 많을 것으로 추정.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가구원 수는 본인 포함 평균 2.3명으로, 일반 한부모 가정의 가구원 수 평균인 2.9명<sup>5)</sup>보다 적음(표 2). 이를 근거로 한부모 가정이 많을 것으로 추정됨.
- ▶ 여성은 배우자(43.1%)보다 미혼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49.0%)가 더 많다는 점에서 한부모 가정 중에서도 모자(母子) 가정이 많을 것으로 추정함(표 2).

<표 2> 북한이탈주민 가구원 수 및 동거 가족

단위: %

구분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 수 (본인 포함)	함께 살고 있는 가족									
		배우자	미혼 자녀	기혼자녀 및 그 배우자	손자녀 및 그 배우자	부모	조부모	미혼 형제	친인척	기타	없음
전체	2.3	43.1	44.8	1.1	1.4	9.7	0.4	4.3	0.2	0.2	30.7
남성	2.3	43.1	31.4	0.8	0.8	19.0	0.6	8.5	0.2	0.4	34.6
여성	2.3	43.1	49.0	1.2	1.5	6.8	0.4	3.0	0.3	0.2	29.4

주: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남북하나재단(2021). 2020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p.154, 156.

### Ⅲ.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취업과 육아부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상황은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취약함.

-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에 비해 경제활동 참가율, 비경제활동 비율, 고용률, 실업률 등의 경제지표에서 전반적으로 취약한 편이며,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표 3).
-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취업 활동 장애 요인 1순위는 '육아부담'인 것으로 나타남. 남한 거주기간

5) 김은지·최인희·송효진·배호중·최진희·배주현·성경(2018).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한국여성가족연구원. p.38.

이 길수록 육아부담이 크다는 것은 정착 과정에서 혼인과 출산을 하는 경우가 많음을 방증함.

- 북한이탈주민의 직장 퇴직 이유에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그림 4).
  - ▶ 여성의 퇴직(이직) 사유는 '심신장애', '육아', '개인적 이유' 순인 반면, 남성은 '개인적 이유', '심신장애', '직장 휴폐업' 순. 남성이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둔 경우는 5.5%에 불과함.

〈표 3〉 북한이탈주민 성별에 따른 경제활동 관련 지표

단위: %, 만원

구분	북한이탈주민(2020)			일반 국민(2019)
	전체	남성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60.1	74.1	55.7	63.3
비경제활동 비율	39.9	25.9	44.3	-
고용률	54.4	70.6	49.3	61.4
실업률	9.4	4.7	11.4	3.0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216.1	270.3	192.0	264.3
생계급여 수급률	23.8	-	-	3.8

자료: 1) 남북하나재단(2021). 2020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p.111.  
 2) 통일부(2020). 2020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p.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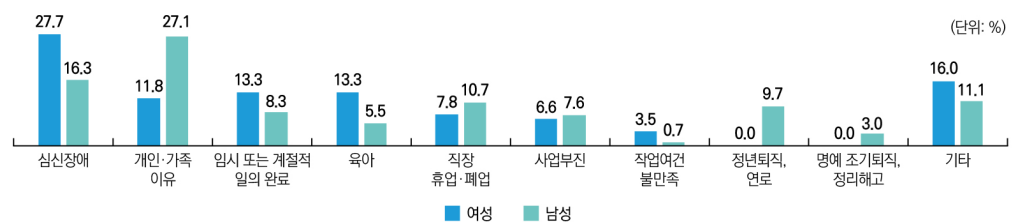
〈표 4〉 여성의 취업활동 장애 요인(1순위)

단위: %

구분	육아 부담	여성에게 대한 사회적 편견, 차별적 관행	가족 돌봄 (육아제외)	불평등한 근로여건 (채용, 임금 등)	구인 정보 부족	가사 부담	잘 모름	기타	계	
전체(2020년)	45.4	13.9	9.9	7.8	6.5	4.8	8.8	2.9	100.0	
성별	남성	44.7	15.1	8.8	6.8	3.4	6.0	12.6	2.6	100.0
	여성	45.6	13.5	10.3	8.1	7.5	4.4	7.6	3.0	100.0
남한 거주 기간	3년미만	39.7	12.3	15.0	5.2	7.5	5.0	10.8	4.4	100.0
	3~5년미만	44.0	12.8	12.2	6.6	7.2	4.9	9.1	3.3	100.0
	5~10년미만	44.6	14.9	10.2	7.9	7.5	3.9	7.7	3.3	100.0
	10년이상	47.9	13.7	7.9	8.7	5.2	5.4	9.1	2.1	100.0

자료: 남북하나재단(2021). 2020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p.81.

[그림 4] 과거 퇴직(이직) 이유



자료: 남북하나재단(2021). 2020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pp.137-138 표를 도식화함.

#### IV.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자녀양육 현황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는 대부분 남한 출생이며, 어린이 집을 주로 이용함.

- 탈북민 여성이 육아로 인해 취업활동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정착 과정에서 혼인과 출산이 많다는 것을 의미함.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자녀 대부분이 남한 출생이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함.
  - ▶ 영유아 자녀가 있거나 영유아기를 남한에서 보낸 자녀를 둔 탈북민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자녀의 70.4%가 남한 출생임.<sup>6)</sup>

정부가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육아지원정책으로 추진 중인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비용부담 등으로 꺼려하는 경우가 많음.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자녀들 대부분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함.
  - ▶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을 주로 이용하며, 이용 시간은 1일 8시간 이상임. 탈북 여성 면담에서 “선생님들이 북한 애라고 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불만족 의견도 있으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만족도는 높은 편임(만족함 64%).<sup>7)</sup>
  - ▶ 현 정부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통한 탈북여성 보육지원”을 추진 중. 그러나 실제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한 사례는 찾기 어려움. 대체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알고는 있으나,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꺼리는 것으로 나타남.<sup>8)</sup>

아이돌보미는 쓸 계획이 없어요. 어린이집을 보낼 거예요(지금 대기 중). 어린이집은 본인부담이 거의 없지만, 아이돌보미는 제가 돈을 내야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에 애를 보내는 이유는)말을 기본적으로 배우게 하려고요. 제가 집에 데리고 있으면 아이가 내 말씨를 따라할까 봐요. 어린이집 가면 말도 배우고 춤도 배우고…….
- 북한이탈주민은 영유아 자녀 양육이 어려운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과 대리양육자의 부재, 학습 지도의 어려움 등을 꼽음.<sup>9)</sup>

## V.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 재정립을 위한 정책 제언

정책수요자의 다수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과 가정(육아)에 초점을 맞춰 기존의 정착지원정책을 점검 및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취업정책 재정립
  - ▶ 북한이탈주민 취업정책을 살펴보면, “3년간 근속”, “3개월 이상 취업 등의 지속”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만 장려금과 가산금, 자산형성제도(미래행복통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여성은 건강상의 이유나 정착 과정에서 혼인, 출산, 육아를 거치면서 취업활동을 ‘근속’ 또는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에서 육아정책 비중을 높이고 정책 수요자 니즈에 부합하는 육아지원정책 수립
  - ▶ 통일부가 발표한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 22개 추진과제 및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1-2023)」 24개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육아지원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세부과제 단위에서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통한 탈북여성 보육지원”만 제시됨.
  - ▶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아이돌보미보다는 기관 이용을 선호하므로, 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예: 기관입소 순위에 우선권 부여, 교직원 대상 탈북민 이해교육 실시 등).
- 가구 단위의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실시
  - ▶ 매년 실시하는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는 개인 단위 조사이므로, 북한이탈주민 가정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또는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처럼 「북한이탈주민 가족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증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 수립에 활용할 것을 제안함.

이윤진 선임연구위원 leeyunjin@kicce.re.kr

6) 이윤진·이정림·김경미(2012).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 강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94

7) 이윤진·이정림·김경미(2012).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 강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94, p.99-101.

8) 이윤진·김민주·김화순(2020). 북한이탈주민 빈곤 한부모 가정의 자녀양육 실태와 지원방안. p.75.

9) 이윤진·이정림·김경미(2012).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 강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102.